

# 어둠이 무섭다고?

피터 베이거스 글·벵자맹 쇼 그림·김지은 옮김



주제	그림책을 읽고 어둠의 입장에서 상상하기
권장 차시	4차시
대상 학년	3~4학년
관련 주제어	어둠, 두려움, 상상, 사고의 전환(역발상)
교육 과정 연계	<b>국어</b> [4국01-04]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한다. [4국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미술	<b>미술</b>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작성	창원 북면초등학교 손희선 선생님

##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어린 시절엔 누구나 어둠을 두려워한다. 잠자리에 들며 불을 끄지 못하게 하거나, 화장실에서 문 닫는 걸 두려워하기도 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놓이면 두려워지는 건 당연하다.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은 불안이 밀려들고 온갖 무서운 상상을 하다 보면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늘 우리와 함께하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어둠, 두려움의 대명사이자 부정적 개념으로 상징되는 어둠을 어둠의 입장에서 상상해보면 어떨까? 빛을 피해 숨어 살아야 하는 겁 많은 존재, 친구를 사귀기 힘든 외로운 존재, 까만 산딸기와 다크 초콜릿을 좋아하는 아이 같은 존재, 우리가 밤에 꼭 잘 수 있도록 지켜 주는 든든한 어른 같은 존재…….

어둠 덕분에 우리가 침을 누리지만 어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둠 덕분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친다면, 어둠은 더 이상 두렵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는 친근한 존재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작가의 권유대로 어둠 속에 있게 되었을 때, “안녕!” 하고 어둠에게 인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

## ■ 학습 목표

- 그림책을 읽고 어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내가 어둠이 되었다고 상상하여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
- 어둠에 대해 탐색하여 어둠을 표현하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 ■ 수업 준비

아이들 대다수는 어둠을 무서워한다. 밤에 잘 때 무서워서 불을 켜 놓고 자거나 어두운 것이 무서워 화장실 가는 것을 참은 경험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이 책은 무서움의 대상인 어둠의 입장에서 쓰였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어둠이 왜 밤에만 나오는지, 어둠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둠이 친근해진다. 작가의 상상력과 사고의 전환, 귀엽고 사랑스럽게 그려진 어둠 그림이 새로운 시각으로 어둠을 바라보게 만든다.

표지와 제목을 살펴보며 평소 어둠에 대해 가졌던 생각, 느낌, 경험 등을 나눈다. 어둠의 입장에서 쓰인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내가 어둠이라면 어떨지 생각해 본다. 무섭고 두렵게 느껴졌던 어둠에 대해 탐구를 한다. 어둠이 사는 곳,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생긴 모습, 무서워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 등을 찾아본다. 어둠 탐구를 바탕으로 어둠 입장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

책을 다 읽은 후 어둠이 되어 사람들 인터뷰하기와 어둠 인터뷰하기를 핫시팅 방법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어둠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을 담은 캐릭터를 자유롭게 만들어 보려 한다.

**수업 준비물** 말풍선 포스트잇, 마이크, 어둠 소품(검은 보자기, 검은 모자, 검은 안경 등), 캐릭터 만들 재료(색연필, 사인펜 등)

##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b>표지 읽기</b> <b>어둠 생각 그물 만들기</b> - 어둠에 대한 다양한 생각 나누기	2차시
읽는 중	<b>내가 어둠이라면?</b> - 어둠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b>어둠 자기소개서</b> - 어둠 상상 탐구하기 - 어둠의 입장에서 '자기소개서' 쓰기	
읽은 후	<b>어둠 인터뷰</b> - 어둠이 되어 사람들 인터뷰하기 - 어둠을 인터뷰하기 <b>어둠 캐릭터 만들기</b> -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담은 어둠 캐릭터 만들기	2차시

### 읽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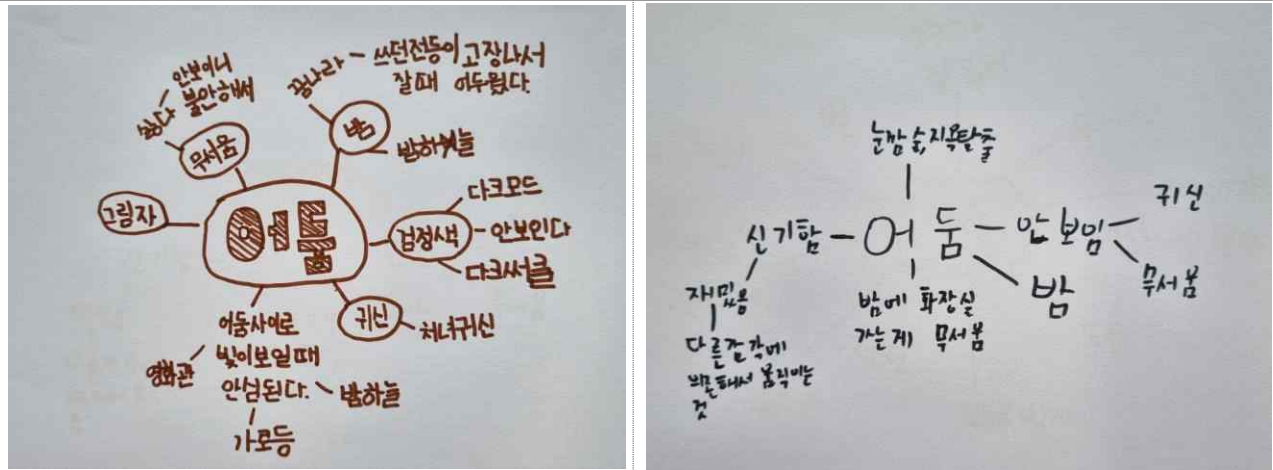
#### 1. 표지 읽기

- 제목을 가리고 표지 살펴보기
  - 표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 예) 까맣고 큰 거인이 인사를 하고 있어요.
    - 거인 몸에 별이 보여요.
    - 나무, 집, 자동차가 보여요.
    - 큰 거인이 웃고 있어요.
    -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있어요.
    - 해가 뜨기 전 새벽 같아요.
  - 눈을 감아 봅시다. 어떤 느낌인가요?
    - 예) 캄캄해요.
    - 답답하고 무서워요.
    -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좀 무서워요.
    - 잠이 와요.
    - 밤이 된 것 같아요.
  - 책 제목을 예상해 봅시다.
    - 예) 『밤이 되었어요』
    - 『깜깜이 안녕?』
    - 『어둠이 인사해요』
    - 『밤은 캄캄 별은 반짝』

## 2. 어둠 생각 그물 만들기

### ■ 어둠 생각 그물 만들기

- 책 제목은 『어둠이 무섭다고?』입니다. ‘어둠’에 대해 생각 그물을 만들어 봅시다.



### ■ ‘어둠’하면 떠오르는 것, 느낌, 경험 나누기

- 어둠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나눠 봅시다.

예) 1학년 때 정전이 돼서 어두워졌을 때 엄청 무서웠어요.

밤에 잘 때 어두운 것이 싫어서 귀여운 오리 전등을 샀어요.

어두워지면 놀이터에서 못 놀아서 어둠이 싫어요.

어둠 하면 귀신이 생각나요.

어둠 하면 도둑이 생각나요. 무서워요.

어두우면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긴장이 돼요.

## 읽는 중

### 1. 내가 어둠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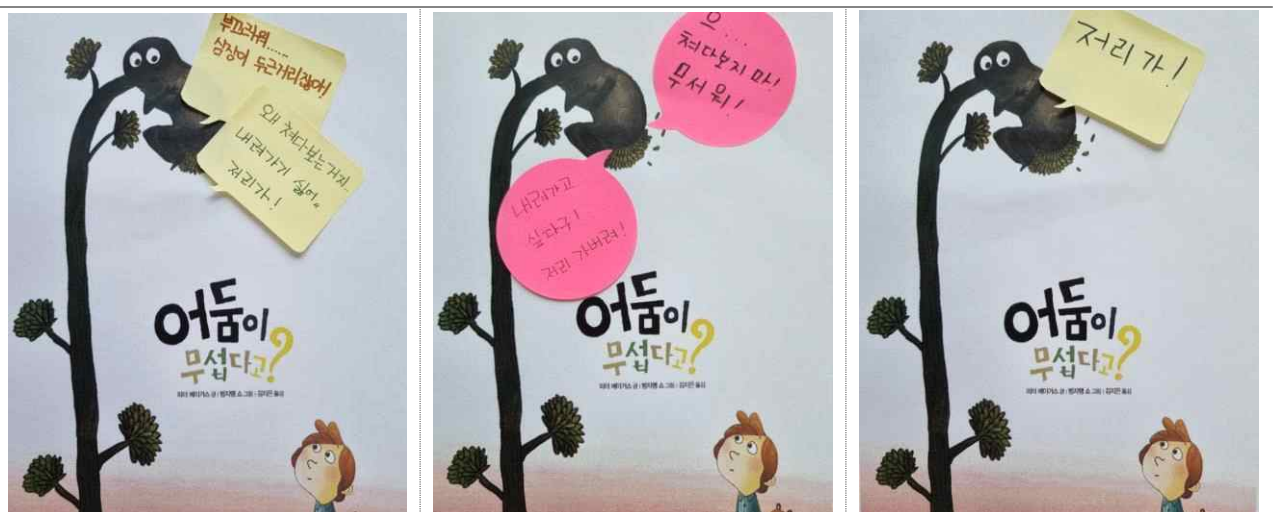
#### ■ 속표지 살펴보기

- 나무에 매달린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표정과 행동을 하고 있나요?

예) 까만 것이 어둠 같아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둠처럼 보여요. 나무에 올라갔다가 못 내려와서 무서워하고 있어요.

- 어둠이 하는 말이나 생각을 말풍선 포스트잇에 적어 붙여 봅시다.



■ ‘내가 어둠이라면?’ 어둠의 입장에서 생각 나누기

※Tip. 그림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느끼는 장면에서 어둠의 입장이 되면 어떨지 이야기 나누면 된다.

- 내가 어둠이라면 어떤 음식을 좋아했을까요?

예) 오징어먹물 파스타 / 초코브라우니 / 별 사탕 / 달 사베트 / 김 / 흑임자 케이크 / 흑미 밥

- 낮에도 밤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어둠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 답답해서 힘들어요. 그냥 여기저기 날아다닐래요.

빛이 무섭지만 한 번은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슬플 것 같아요.

- 어둠을 좋아하는 존재는 없을까요?

※Tip. 누가 어둠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니? 장면이 나오기 전에 질문하면 된다.

예) 귀신이란 도깨비요. 어두워야 나와요.

부엉이란 올빼미요. 야행성 동물이라 밤에 움직여요.

저요! 저는 어두울 때 더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2. 어둠 자기소개서

■ 어둠 상상 탐구하기

- 책 속 어둠이 들려준 이야기와 상상력을 더해 어둠을 탐구해 봅시다.

※Tip. 교사가 탐구영역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며 적어 볼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3~5 가지를 골라서 적어 본다. 다른 주제로 상상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탐구주제를 정해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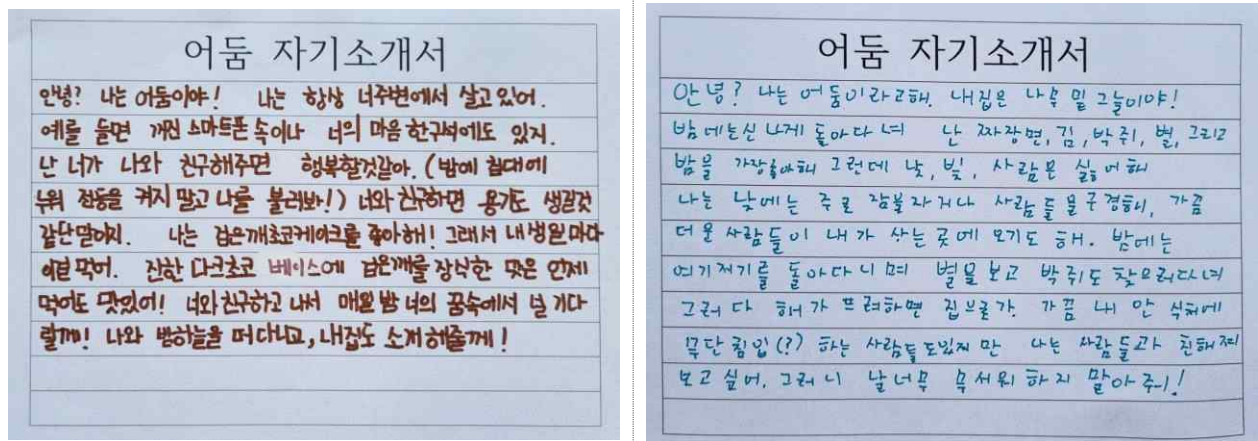
어둠이 사는 곳은 어딜까?	어둠이 싫어하는 것은 뭘까?	어둠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둠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둠은 언제 용기가 생길까?	어둠이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어둠은 생일에 무엇을 먹을까?	어둠이 좋아하는 것은 뭘까?	어둠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어둠은 밤에 무엇을 할까?	어둠은 낮에 무엇을 할까?	어둠이 언제 가장 슬플까?
어둠과 나의 닮은 점은 무엇일까?	어둠과 나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어두울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어둠 상상 탐구		상상 탐구가
사는 곳	개천스타트폰 안에 내 마음 구석에	상상 탐구가
가장 행복할 때	내가 말보죽을 때 나와 친구들 있을 때	
생일에 먹는 것	튀김, 케이크, 초콜릿, 베이슨	
용기가 생길 때	나와 친해진 후	
어둠 때 하고 싶은 것	어둠 친구들과 함께 밤하늘을 떠다니고 싶다.	

어둠 상상 탐구		상상 탐구가
사는 곳	낮에는 그늘, 밤에는 어디든지	상상 탐구가
좋아하는 것	밤, 짜장면, 김, 별, 박쥐	
싫어하는 것	낮, 빛, 사람	
낮에 하는 일	자기, 마음 먹기, 인간 관찰하기	
밤에 하는 일	돌아다니기, 별구경, 박쥐 팔기	

어둠 탐구

- 어둠 자기소개서 쓰기
    - 내가 어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봅시다.
- ※Tip. 어둠 탐구활동에 상상력을 더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어둠 자기 소개서

## 읽은 후

### 1. 어둠 인터뷰

- 어둠 인터뷰하기(1)
  - 내가 어둠이라면 사람들에게 궁금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 한 명이 어둠이 되어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직접 인터뷰해 봅시다.

※Tip. 인터뷰할 때 검은 보자기, 검은 모자, 검은 목도리 등 어둠을 나타내는 소품을 준비하면 더 재미있다. 어둠 역할을 하는 친구가 직접 준비해도 좋다. 어둠 역할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교사가 직접 해도 된다. 어둠 역할은 2~3명이 돌아가며 맡아도 된다.

예)

왜 내가 싫어요?	안 보이니까 넘어질 것 같아. 어둠이 오면 밖에서 못 놀거든.
왜 나를 무서워하나요?	귀신이 나타날 것 같거든. 영화를 보면 어두울 때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
나를 좋아하는 친구는 없나요?	나는 너를 좋아해. 어두울 때는 별이 더 잘 보여.
나를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괴물이 나타날 것 같아서 두려워. 잠이 와.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어둠 속에서 달리기하고 싶어.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네 생일에 축하 노래를 불러 주고 싶어. 촛불 대신 풍선을 터뜨리자!

- 어둠 인터뷰하기(2)
  - 어둠에게 궁금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 어둠이 역할이 된 친구가 앞으로 나오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인터뷰해봅시다.

※Tip. 2-3명 정도 어둠 역할을 정해 한꺼번에 인터뷰해도 되고 한 명씩 나와 릴레이 인터뷰를 해도 된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 '어둠 상상 탐구하기' 활동 중 질문을 활용해도 된다.

예)

너는 어디에 살아?	나는 어디에나 있어. 너희가 가까이 오지 않는 곳 어디든! 동굴이나 깊은 바다 속에 있어.
너는 어떻게 생겼니?	나는 몸의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상상하는 대로 변해! 빛이 나타나면 투명 인간이 되지!
너는 언제 행복해?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랑 루돌프 만날 때 행복해. 해가 질 때 행복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니?	나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줘! 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좋아해 주면 좋겠어. 나에게 말 걸어 주면 좋겠어.
좋아하는 것이 뭐야?	친구 / 까만 초콜릿 / 너희들 / 오징어 먹물 / 밤이 오는 것
나랑 만나면 무엇을 하고 싶어?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싶어.
너는 낮에 무엇을 하니?	서랍 속에서 잠을 자. 침대 밑이나 장롱 속으로 숨어서 빛이랑 이야기해.

## 2. 어둠 캐릭터 만들기

### ■ 어둠을 캐릭터로 만들기

- 우리가 만난 어둠을 캐릭터로 그려 봅시다. ‘어둠 캐릭터’에 어울리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어도 됩니다.

※Tip. 그리기, 클레이 만들기, 슈링클스 종이 굽기 등 다양한 방법 중 아이들 스스로 골라서 표현하게 하면 더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어둠의 느낌을 표현하는 몸짓, 음악으로 확장해도 된다.



내가 상상한 어둠 캐릭터

### ■ 나의 어둠 캐릭터 사랑하기

- 어둠 캐릭터를 보여 주며 특징이나 이름을 소개하여 봅시다.

예)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만 무서워하고 빛에게 다가갈 용기가 부족한 캐릭터야.

낮에는 투명한 옷을 입고, 밤에는 새까만 옷을 입어. 밤에는 새까만 옷으로 하늘을 덮어 버리지.

낮이 노란 옷을 선물로 줬는데, 입기 싫어서 옷장에 넣어 두었다.

반은 뾰족 털, 반은 뾰글 털을 가진 어둠이다. 기분이 좋으면 뾰글 털, 슬프면 뾰족 털이 많이 생긴다.

### ■ 그림책을 읽고 활동 후 소감 나누기

- 『어둠이 무섭다고?』 책을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해 봅시다.

예) 어둠이 엄청 무서웠는데, 책을 읽으니 좀 친근해졌어요.

오늘 밤에는 어둠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혼자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둠 인터뷰 활동이 너무 재미있었는데, 어둠이 조금 덜 무서워졌어요.

아직은 어둠이 조금 두렵지만 싫어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도 나를 무서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레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 벌레도 내가 무서울 것 같아요.